



6일 새벽(한국시간) 이집트 카이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U-20 월드컵 16강전 한국과 파라과이 경기에서 이집트 교민들이 한국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 /연합뉴스

# “4강 넘어 우승까지... 새 역사 쓰겠다”

## 한국, U-20월드컵 파라과이 꺾고 8강

### 김보경 선제골 이어 김민우 골... 골

한국 20세 이하(U-20)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남미의 강호 파라과이를 제물로 18년 만에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8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6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이집트 카이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파라과이와 대회 16강에서 후반 10분 김보경(홍익대)의 결승골을 시작으로 후반 15분과 후반 25분에 연속으로 터진 김민우(연세대)의 추가골과 썩기골을 앞세워 3-0으로 완승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91년 포르투갈 대회 때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해 8강에 오른 이후 무려 18년 만에 8강 진출의 영광을 재현했다.

한국은 가나-남아프리카공화국 승자와 대망의 4강 진출을 다툰다.

특히 이날 2골을 터트린 김민우는 독일과 조별리그 2차전에서 넣은 동점골을 포함해 모두 3골을 뽑아내 지난 1983년 멕시코 대회 때 신현호의 3골과 동률을 기

록, 역대 U-20 대회 최다골 기록에 도전하게 됐다.

파라과이의 화력에 대비해 전반전부터 수비 라인에 철용성을 세우고 풀백 요원인 김민우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워 '김민우 시프트'를 활용한 홍명보 감독의 전략이 제대로 들어맞은 멋진 승부였다.

튼튼한 수비라인을 바탕으로 공격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치열한 중원대결에 나선 한국과 파라과이는 전반전 내내 유효슈팅을 한 차례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후반 들면서 한국은 전반전의 수비 위주 플레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했고, 상대 선수의 퇴장까지 겹치면서 화끈한 골 사냥을 시작했다.

후반 1분 만에 서정진의 슈팅으로 공세의 포문을 연 한국은

후반 10분 서정진이 중원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볼을 내주자 김민우가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다. 김민우의 발끝을 떠난 볼이 골키퍼 선방에 막혀 왼쪽으로 흐르자 반대편에서 쇄도하던 김보경이 가볍게 왼발로 밀어 넣으면서 승리를 예감했다. 이날 생일을 맞은 김보경의 '자축골'이었다.

팽팽하던 승부의 균형은 급격하게 한국으로 기울었고, 후반 15분 선제골의 발판을 마련했던 김민우가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터트리며 승기를 잡았다.

한국은 후반 25분 추가골의 주인공 김민우가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박희성(고려대)의 크로스를 받아 해당 썩기골을 터트리며 3-0 승리를 완성, 18년 만에 8강 진출이라는 대업을 완수했다. /연합뉴스

연도	개최지	우승	성적
1977	튀니지	역시없음	2차대결전 탈락
1979	일본	역시없음	9차대결전 탈락
1981	호주	역시없음	11차대결전 탈락
1983	멕시코	역시없음	4위
1985	러시아	역시없음	10차대결전 탈락
1987	칠레	역시없음	12차대결전 탈락
1989	시리아	역시없음	13차대결전 탈락
1991	포르투갈	역시없음	8차대결전 탈락
1993	호주	역시없음	9차대결전 탈락
1995	카타르	역시없음	14차대결전 탈락
1997	말레이시아	역시없음	22차대결전 탈락
1999	나이지리아	역시없음	19차대결전 탈락
2001	이라크	역시없음	10차대결전 탈락
2003	네덜란드	역시없음	본선 조별리그 탈락
2005	캐나다	역시없음	본선 조별리그 탈락
2007	이집트	역시없음	10차대결전 탈락
2009	이집트	?	10차대결전 탈락



## ▲ 홍명보호 황태자 김민우 체구 작지만 축구 지능 뛰어남

“천금 같은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고 승리에 썩기를 박는 헤딩골까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축구대표팀에서 전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작은 거인’ 김민우(19·연세대)가 200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파라과이와 16강에서 원맨쇼를 펼치며 3-0 승리에 주역이 됐다.  
김민우는 홍명보 감독이 구사하는 전략의 중심이어서 ‘홍명보호의 황태자’로까지 불린다.  
대표팀 선수 중 키가 가장 작은 172cm인 김민우는 이번 대회 직전까지 왼쪽 풀백을 맡아왔으나 측면 미드필더는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플레이어다.  
지난달 27일 카메룬과 개막전 때는 자신의 아프리카 선수들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장했던 김민우는 독일과 2차전에서 왼쪽 날개로 맹활약했고 미국과 3차전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박희성(19·고려대)의 뒤를 받치는 처진 스트라이커로 공간을 창출하며 3-0 대승에 디바돌이 됐다.  
키는 작지만 빠른 스피드와 감각적인 왼발 슈팅력을 가진 김민우의 활약은 8강 진출에서 만난 파라과이와 경기에서도 빛을 발했다.  
홍명보 감독은 “민우는 키가 작지만 축구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 전술의 모든 걸 이해하는 선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민우는 “전반에 찬스를 못 살려 후반 골이 나올 때 공을 잡자마자 찼는데 골이 됐다. 감독님의 믿음에 보답한 것 같아 기쁘다”라면서 “부상으로 뛰지 못한 오재석 선수가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아 힘을 불어 넣어주는 의미로 골 세리머니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프리카의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중 한 팀과 8강을 하게 됐다. 카메룬과 조별리그 때 못했던 걸 대신 만회하겠다. 목표는 결승에 오르는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 “선수들이 이룬 쾌거... 만족할 단계 아니다”

■ 홍명보 감독 일문일답  
“우선 8강이라는 결과는 저 역시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고 특히 세 골 차로 이기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선수들이 열심히 싸워준 덕분이다. 우리 선수들은 처음에 왔을 때보다 발전하고 있고 점점 발전해 갈 것이다.”  
홍명보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감독은 6일(한국시간) 이집트 카이로 인터내셔널스타디움에서 열린 파라과이와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에서 3-0으로 완승, 18년 만에 8강 진출을 지휘하고 나서 낙승을 거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새 역사를 쓴 것인가.  
-한 번도 U-20 월드컵에서 꺾지 못했던 파라과이와 미국을 꺾은 것만으로도 새로운 역사가 아닌가.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세 경기도 최선을 다하겠다.  
-8강 진출의 의미는.  
▲일단 그렇게 기원했던 조별리그를 통과했고 8강까지 올라온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 선수들이 이런 결과를 낸 건 조사를 해볼 만한 일이다. 다른 팀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는 외국에서 알기도 어려운 대학이나 고등학교 선수까지 포함돼 있다. 전적으로 선수들의 100% 노력 덕분이다.  
-남은 대회에서 목표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기록에 버금가는 성적을 내려면 다음 경기에서 준결승에 올라야 한다.  
-전반 끝나고 선수들에게 주문한 건.  
▲후반에 경기 내용이 좋아진 게 아니라 전반부터 경기 감각을 찾아 미드필더와 사

이드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아졌다. 많이 움직여 공간을 만들어냈다. 전반 끝나고 라커룸에 가서 특별히 주문하지 않았다. 더 움직이면서 볼을 받고 공간을 만들라고 했다.  
-김보경이 경기 후적으로 다음 경기에 뛠 수 없는데.  
▲같은 포지션에 이승철과 조영철이 있다. 남은 기간 컨디션을 조절해 좋은 선수가 나오면 된다. 보경이가 못 뛰어도 자원은 충분하다.  
-김민우를 처진 스트라이커로 세웠는데.  
▲윤석영과 김민우가 모두 왼쪽 풀백을 뛸 수 있지만 경기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김민우를 풀백으로 기용하는 건 공격적인 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보경도 왼쪽에서 100%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 정동호를 오른쪽 풀백으로 투입했다.  
-오재석의 부상이 심하지 않겠는데.

특히 FIFA는 이날 김민우(연세대)가 1-0 상황에선 후반 15분 쏘아올린 추가골을 ‘오늘의 골’로 선정했다. 후반 10분 날카로운 슈팅으로 김보경(홍익대)이 터트린 결승골의 발판을 만들었던 김민우는 5분 뒤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강력한 왼발슈팅으로 파라과이의 골 그물을 흔들었다.  
이에 대해 FIFA는 “김보경의 선제골에 도움을 줬던 김민우의 추가골로 태극전사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뽐냈다”라며 “김민우는



▲근육 파열이라고 들었는데 다행히 병원 진단에서 나쁘지 않다고 한다. 경기에 뛰려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보경이를 위해 이겨주지 않겠다 생각 한다. /연합뉴스

## FIFA “한국 8강 진출 놀랍고 놀랍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의 2009 FIFA U-20 월드컵 8강 진출에 대해 ‘놀라운 결과’라는 평가를 내렸다.  
FIFA는 6일(한국시간) 새벽 이집트 카이로에서 치러진 대회 16강전에서 한국이 파

라과이를 꺾고 8강에 오르자 홈페이지에 ‘Surprise, Surprise(놀랍고, 놀랍다)’라는 기사를 올렸다. FIFA는 “한국이 파라과이보다 강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라며 “파라과이는 조별리그를 치르면서 쌓은 기대감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날 김민우(연세대)가 1-0 상황에선 후반 15분 쏘아올린 추가골을 ‘오늘의 골’로 선정했다. 후반 10분 날카로운 슈팅으로 김보경(홍익대)이 터트린 결승골의 발판을 만들었던 김민우는 5분 뒤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강력한 왼발슈팅으로 파라과이의 골 그물을 흔들었다.  
이에 대해 FIFA는 “김보경의 선제골에 도움을 줬던 김민우의 추가골로 태극전사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뽐냈다”라며 “김민우는

측면 공격수에게 패스하는 척하면서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다”라고 칭찬했다.  
한편 FIFA는 이날 경기장을 찾아 응원을 펼친 한국 응원단에 대해서도 “2002년의 재림”이라는 표현을 써서 눈길을 끌었다.  
FIFA는 “킴오프 직전부터 모인 한국 응원단이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부르면서 90분 내내 일사불란하게 응원전을 펼쳤다”면서 “2002년 한일월드컵의 기억을 되살렸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